

영어교육, 60권 4호 2005년 겨울

유소년기의 다양한 영어 학습 방법이 고급 영어 구사 능력 달성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에 대한 연구

전 종 섭 (한국외국어대학교)*

황 윤 희 (서울대학교)

이 시 연 (서울대학교)

Jun, Jong Sup; Whang, Yunhee; & Lee, Siyeon. (2005). Long-term effects of English-learning strategi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upon advanced communicative proficiency of English. *English Teaching*, 60(4), 487-515.

This paper aims to answer a prevalent question raised by most English learners: *What should children or adolescents do to accomplish advanced communicative proficiency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when they grow up?* We studied 280 college students' personal histories of studying English through their lives using a questionnaire. For each student, we obtained detailed data about whether (s)he had had a foreign experience, whether (s)he had subscribed to periodicals, whether (s)he had gotten private lessons from native English speakers, etc. To assess their levels of communicative proficiency of English, we used TEPS scores, SNUCEP LAB scores, and our own speaking/writing score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veal that the subjects' foreign experiences and their outstanding efforts to study grammar/reading, vocabulary, and listening at advanced levels significantly contribute to accomplishing efficient communicative skills of English. All other factors like the subscription to periodicals, the education at private language institutes, etc. do not play a significant role in accounting for adults' mastery of English.

I. 서론

오늘날 국제어로서 영어가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고급 수준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증진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1997년부터 초등학교 정규 교과목에 영어가 포함된 것을 비롯해(교육부, 1996), 매년 우리 국민 1,160만 명이 4조 2,000억 원을 쏟아 붓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어 사교육 시장의 폭발적 팽창(홍중성, 2001)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 제1 저자: 전종섭, 제2 저자: 황윤희, 이시연

영어에 대한 대중적 논의의 가장 큰 화두는 “어떻게(How) (혹은 무엇을(What)) 해야 고급 수준의 영어 사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가?”이다. 실제로 2005년 현재 구글(www.google.co.kr) 한글 검색 키워드로 ‘영어 학습법’을 입력하면 70,000여 개의 관련 문서가 검색된다. 이 문서들을 통해 확인한 영어 학습자들의 실질적인 물음은 영어교육계의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답해 주기에는 학문적으로 부적절 하면서 동시에 난해하다. 영어 학습자들이나 학부모들은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는 학원을 다녀야 하는지, 한국인 교사에게 문법/독해 등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지, 영어 유치원은 몇 살 때부터 다니는 것이 좋은지, 2세 때부터 영어 동요나 만화의 오디오/비디오 자료를 접하게 하는 것이 좋은지,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집에서 간단한 생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초중고 시절의 해외 연수는 권할만한지, 영어 학습지는 무엇을 몇 살 때부터 보면 좋은지 등과 같은 실질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다.

이에 반해 학자들의 연구 관심은 특정 교수법이나 학습 전략에 대한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분석, 혹은 영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능력 평가를 위한 세부 기준의 마련과 같은 미시적 관점에서 교육 정책과 같은 거시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통제 가능한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 때문에 영어 교육 전문가라 하더라도 영어 학습자들의 실제 물음에 답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5세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자녀를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는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겠지만, 영어교육 학자의 입장에서는 학원/유치원마다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일정한 프로그램 내에서도 교수 전략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내려져야 하고, 아동의 성격, 학습 동기, 가정 환경 혹은 지역적 변인 등에 따라서도 영어 교육 효과가 달라질 수 있고, 원어민 교사의 자질, 경험, 태도 등의 변인도 고려해야 하는 등 통제하기 힘든 변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자녀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라고 답하기 힘들게 되고, 그보다는 영어 교육에 관심이 많은 또한 사람의 학부모로서 사건을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영어 교육 실수 요자들의 질문은 통제할 수 없는 변인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인 연구 주제로 부적절하고, 동시에 아무리 탁월한 영어교육학자라도 단정적으로 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난해하다.

영어 학습자들의 갈증을 영어교육학자들이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틈을 타 학문적으로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수많은 영어 학습법/교수법이 영어 교육 시장에 등장하였다. 이들 학습법/교수법들은 생성언어학의 핵심 개념인 보편 문법(Universal Grammar, =UG), 언어 습득 장치(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D),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 등을 정확한 이해 없이 사용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발성 연습을 하거나 특정 주파수의 음악을 많이 듣기만 하여도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는 식의 해괴한 논리를 펴기도 하고, 때로는 생성언어학자나 영어교육학자 전반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표현하며 비전문가의 미신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특정 영어 테이프를 틀어 놓고 잠을 자기만 하면 영어를 잘 하게 된

다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영어 교육 시장 전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면, 잘못된 영어 학습법/교수법의 폐해 또한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영어 교육 시장의 천문학적 경제 가치를 감안한다면, 잘못된 영어 학습법/교수법이 지배하는 영어 교육 시장이 국가 경제를 병들게 하고, 국민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그 폐단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논문의 목적은 영어 교육 실수요자들의 가장 실질적인 질문에 경험과학적으로 타당한 답변을 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어떻게(How) (혹은 무엇을(What)) 해야 고급 수준의 영어 사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과학적으로 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급, 중급, 상급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을 갖춘 성인 피험자 280명(남자 187명, 여자 93명; 전원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난 10-20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학습했는지에 대해 설문지법과 개별 면담법을 활용해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의 조사 내용은 해외 체류 경험, 유년기의 시청각 교재 노출 경험, 영어 학습지 구독 경험,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는 학원 수강 경험, 가족 내 영어 대화자 유무, 한국인 교사가 가르치는 학원 수강 경험, 공교육 환경에서의 영어 수업 경험, 문법/독해/어휘/듣기 등 세부 영역에서의 개인별 학습 태도 등에 대한 물음과, 매 세부 조사 항목에 대한 개인별 만족도, 개인이 판단하는 효율성 문제 등을 포함하여 비교적 자세한 개인별 영어학습사(英語學習史)를 담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의 연구 주제는 미시적으로는 시청각 교재, 학습지, 공교육, 원어민 학원 수강, 해외 체류 등의 영어 학습 방법 하나하나가 성인기 영어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자는 것이며, 거시적으로는 효율적인 고급 의사소통 능력의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바람직한 학습 모형을 알아내자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표의 설정에는 두 가지 중요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우리는 많은 이전 연구에서와 달리 특정 학습법/교수법의 가시적인 단기 효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일례로 이동환과 이세종(2001)에서는 파닉스(Phonics) 지도가 초등학생들의 단기적인 영어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한다. 대부분의 영어 학습자들 또한 “어떤 학습지를 구독했거나, 어떤 학원을 다녔더니 학교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식의 단기적인 효과에 바탕을 두고 특정 학습법/교수법에 대해 호/불호의 판단을 내린다. 본 연구는 단기적인 학습 효과를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고, “유년기, 소년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영어 학습에 참여한 사람은 성인기가 되어 어느 정도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을 갖게 된다”와 같은 영어 교육의 궁극적인 성과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둘째, 영어 학습에 대한 개인사를 조사하게 되면 그 누구도 단 한 가지 학습법/교수법에 의존해 공부한 경우는 없다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의 연구에 참여한 280명의 성인 모두 시청각 교재, 학습지, 원어민 학원, 공교육 등의 여러 변인 중 서너 가지 이상을 조합한 학습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령 학습지와 공교육을 병행한 피험자가 성인이 되어 최상의 영

어 구사력을 갖고 있다 했을 때 그 영어 구사력이 학습지 때문에 생긴 것인지 공교육 때문에 생긴 것인지 혹은 또 다른 요인 때문에 생긴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것은 평균을 단순 비교하거나 두 개 변인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는 것과 같은 기초 통계 분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계층적 다중회귀분석처럼 모형에 바탕을 둔 추론 통계 분석을 필요로 한다.

수집한 자료에 대한 다변량 통계 분석을 통해 우리는 성인기 고급 수준의 영어 구사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유소년기의 일정 기간 해외 체류 경험과 해외 경험이 없는 학습자의 경우에는 고급 수준의 문법/독해/어휘/듣기에 대한 남다른 노력 여부를 찾아낼 수 있었다. 반면, 유년기의 시청각 교재 노출 경험, 영어 학습지 구독 경험, 가족 내 영어 대화자 유무, 외국인이나 한국인 교사가 가르치는 학원/과의 수업 경험 등의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는 성인이 되어 고급 수준의 영어 구사력을 갖는 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진 모형을 만들 수 없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영어 학습법/교수법의 효과에 대한 중요한 이전 연구를 개관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본다. III장은 본 연구에 대한 소개로 응답자 집단, 설문지의 구성과 독립 변수 설정의 문제, 그리고 영어 구사력에 대한 평가 기준 확립을 통한 종속 변수 설정에 대해 밝힌다. 다음으로 IV장은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이며, V장은 결론으로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한다.

II. 영어 학습법/교수법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와 문제점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영어 학습법/교수법 전반에 대한 평가를 경험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heong & Lee(2003)는 10 세 이전 아동들의 영어 사교육 경험이 고등학생이 된 이후 영어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좋은 연구 사례를 남겼다.

Cheong, Sung-Hui와 Lee, Dong-Hoon는 부산 지역 고3 학생 258명(남자 171명, 여자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통해 피험자들의 10세 이전 영어 학습지, 영어 유치원, 영어 과외 경험을 조사하였다. 전체 피험자 중 18.6%에 해당하는 48명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한 조기 영어 교육 수혜자들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조기 영어 교육을 받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보다 수능 모의고사 점수(2002년 6월 13일 서울교육청 시행)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득점을 하였다.

Cheong, Sung-Hui와 Lee, Dong-Hoon의 연구는 영어 교육 실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한 중요한 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극복해야 할 문제점을 남겼다. 첫째, 이들은 영어 조기 교육 집단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이 없는 상태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들은 영어 학습지, 영어 유치원, 영어 과외 중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는 피험자는 모두 조기 교육 집단으로 분류해 조기 영어 교육을 못

받은 학생들과 비교하였다. 그런데, 어느 피험자가 영어 유치원에 수 주 정도의 짧은 기간을 다닌 경험이 있고 다른 피험자가 영어 유치원 2년, 영어 학습지 3년, 영어 과외 3년의 복합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두 피험자를 단순히 조기 교육 집단으로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그리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연구 대상에 대한 명확한 세부 기준의 부재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이들의 연구에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이들의 연구에는 영어 학습지, 영어 유치원, 영어 과외의 세 가지 독립 변수가 등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수능 모의고사 점수를 영어 능력 성취도, 즉 종속 변수로 활용한다. 이들은 영어 학습지, 영어 유치원, 영어 과외 중 어느 하나만 경험했어도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수능 모의고사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득점을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조기 영어 교육이 실제적인 효용이 있음을 주장한다. 이것은 영어 학습지, 영어 유치원, 영어 과외와 고3 영어 성적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상관 관계를 일종의 인과 관계로 확대 해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통계학에서는 상관 관계를 인과 관계로 해석하는 오류를 경계한다. 이 문제가 경험 과학에서 중요한 이유는 상정한 독립 변수 이외에 그 독립 변수들과 관련된 전혀 몰랐던 제 3의 변수가 존재하고, 그 제 3의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어 학습지, 영어 유치원, 영어 과외를 받은 학생들 대부분이 부유층 자제들로서 영어 이외에도 국어, 수학 과외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좀 더 심층적인 연구에서 이들의 고3 시절 높은 영어 성적이 영어 학습지, 영어 유치원, 영어 과외 때문이 아니라 국어, 수학 과외를 받았기 때문으로 판명될 수도 있다. 이러한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설명력 있는 종속 변수를 가능한 많이 연구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령, 영어 학습지, 영어 유치원, 영어 과외 이외에도 조기 영어 교육에 나타날 수 있는 어린 시절 시청각 교재 노출 경험, 한국인 교사에게 문법/독해/어휘 지도를 받은 여부, 가족 내 영어 대화자 유무 등 훨씬 다양한 변인들을 경험한 시기, 기간, 내용 등까지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활용한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변인이 종속 변수에 대해 큰 설명력을 갖게 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결과 분석의 초보성이다. 이들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조기 교육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수능 모의고사 영어 성적에 대한 t-검정이 전부이다. 이미 영어 학습지, 영어 유치원, 영어 과외와 같은 세 개의 독립 변수를 확보한 상황에서 다변량 분석 등을 통해 각각의 변수가 고 3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 수준의 통계 검사인 t-검정만 가지고 조기 교육의 효과에 대해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네 번째 문제는 종속 변수로 사용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영어 성취도에 대한 타당한 척도인가 하는 점이다. 모든 학자들이 동의할만한 영어 성취도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종속 변수로 활용한 것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 문제는 수능 영어 시험의 변별력이다. Cheong & Lee의 연구에서 조기 영어 교육 그룹의 영어 평균 점수는 60.14였고, 비교 집단의 영어 평균 점수는 51.82였다. 두 점수 사이에 존재하는 8.32의 차이는 표본집단의 표준편차를 활용하는 t-검정의 속성 상 유의미한 차이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 유의미한 실력차인지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무엇을 영어 성취도에 대한 평가 기준, 즉 종속 변수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많은 연구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이다. 김진철(1995)은 중고등학교 교내 영어 시험 성적을 영어 성취도에 대한 척도로 활용하였으며, 김진철과 박기화(1999)는 듣기 평가를 기초 의사 소통 능력의 척도로 사용하였다. 영어 성취도 평가 기준의 타당성을 높이는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평가 기준을 다원화하여 몇 가지 다른 종속 변수를 설정한 뒤 이들 사이의 상관 관계를 보이는 일종의 상호 확인(cross-validation) 절차라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III장 3 절을 참조하라.

평가 척도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점은 많은 연구자들이 설문지법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기 평가를 별다른 검증 없이 독립 변수로 설정한다는 데에 있다. Cheong, Sung-Hui와 Lee, Dong-Hoon(2003)의 경우에는 영어 교과목에 대한 학생 개개인의 선호도 조사 항목을 설문지에 포함시켜 이를 수능 모의고사 성적 이외의 평가 척도로 활용하였다. 김인옥과 박지희(2003)는 영어 학습 유형에 따른 말하기 능력 수준을 연구하면서 초등학생 스스로가 평가한 본인의 말하기 능력과 영어 흥미도를 독립 변수로 활용하였다. 자기 평가를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여 독립 변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자기 평가나 자기 만족도가 영어 성취도에 대한 적절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없음을 결론에서 지적할 것이다.

끝으로, 영어 학습법/교수법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대다수가 영어 교육의 단기적 효과에 관심을 가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동한과 이세종(2001)은 파닉스 지도의 단기적인 읽기 능력 향상 효과에 관심을 가졌다. 또한 이완기 외 3 인(2001), 최연희 외 3 인(2002), 부경순(2003)은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배운 학생들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영어를 계속 공부하는 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초등 영어 교육의 중학교 영어 학습 태도에 대한 효과를 논의한 다른 연구로는 김진철(1995)과 이길영(2002)을 들 수 있다. 이런 논의들은 초등 영어 교육과 중고등학교 영어 성취도를 연관시켰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연구로 보이기도 하나 중고등학생 대부분이 영어를 계속 배우는 단계에 있다는 점과 영어 교육 효과에 대한 최종 평가는 의무 영어 교육 과정 대부분이 사실상 완료되는 대학 이상의 성인기에 이루어져야 함을 감안할 때 여전히 장기적 효과로 보기에 미흡한 감이 있다.

III. 다양한 영어 학습법/교수법에 대한 횡단적 평가

지금까지 우리는 영어 학습법/교수법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위해 설명력 있는 독립 변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타당한 영어 성취도 평가 기준을 종속 변수로 활용하며, 수집한 자료에 대한 다변량 분석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기본적 요구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피험자의 해외 체류 경험, 유년기의 시청각 교재 노출 경험, 영어 학습지 구독 경험,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는 학원 수강 경험, 가족 내 영어 대화자 유무, 한국인 교사가 가르치는 학원 수강 경험, 공교육 환경에서의 영어 수업 경험, 문법/독해/어휘/듣기 등 세부 영역에서의 개인별 학습 태도 등에 대한 물음 하나하나를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답하도록 고안되었으며, 각 시기별로 해당 항목에 대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자기 평가를 통해 만족도나 영어 실력 향상에 대한 공헌도까지 답하도록 고안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별, 연령과 같은 기초 자료 이외에도 84개에 이르는 변수를 설문지를 통해 얻을 수 있었고, 통계 분석 과정에서 84개의 변수를 수학적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을 통해 총 200여 개에 이르는 변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영어 성취도 기준으로 성인의 영어 사용 능력을 초급부터 최상급 수준까지 평가할 수 있는 TEPS의 총점과 영역별 점수를 모두 활용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세 사람의 공동 연구자들이 280명의 피험자들을 한 학기 동안 매 주 2회씩 만나 면담하며 그들과 영어로 대화하고 그들의 영어 작문을 여러 차례 수정해 주는 과정을 통해 연구자들 간에 협의한 기준에 따라 말하기, 쓰기 점수를 부여하였다. 아울러 피험자 대부분이 서울대학교 대학영어에서 개발한 영어 듣기 평가 시험(SNUCEP LAB)을 보게 하고, 그 결과를 종속 변수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영어 성취도에 대한 평가 척도를 다원화하여 상관 관계를 상호 확인(cross-validation) 함으로써 종속 변수의 타당성을 극대화한 뒤, 결과에 대한 다변량 통계 분석을 통해 영어 학습법/교수법의 장기적 효과를 평가하였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학부 재학생 280명(남자 187명, 여자 93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2004년 현재 본 논문의 공동 연구자 세 사람이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전담 교수로 근무하는 동안 ‘기초영어’, ‘대학영어’, 그리고 ‘고급영어’ 과목에서 가르쳤던 수강생들이다. 서울대학교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시행의 TEPS 총점 500이하인 학생들은 ‘기초영어’를 수강하게 되며, TEPS 총점 500-700사이의 학생들은 ‘대학영어’를 수강하고, TEPS 총점 700이상인 학생들은 ‘고급영어’ 수강 대상이 된다. 수업은 주 2회 기준으로 영어로만 진행되며, 학급 당 인원은 12-13명에서 20-22명 정도로 다양했다. 수업을 통해 연구

자들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과 영어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극대화 시켰으며, 학생들에게 영어로 발표를 시키고, 영어로 산문을 쓰게 하는 등 도전적인 과제를 부여하고 이를 정밀하게 검토함으로써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어 실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전문가적 견지에서 내릴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 연구 대상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만 21.1세($SD=2.75$; 최소값=17, 최대값=31)였다.

서울대학교 재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때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의 연구 목적은 한 개인의 유년기 청소년기 전체를 통해 경험한 다양한 형태의 영어 학습 방법이 성인기 영어 실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자는 것인데, 국내 최상위 대학인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은 학습 효율에 있어서 정규 분포의 최우측 꼬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선택된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우리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오히려 우리의 연구 결과를 강력하게 지지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에 대해 표본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 대부분이 초중고교 시절 학업 수행에 있어 최상위권에만 머물렀던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교육 효과가 가장 좋은 학생들이다. 만일 어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수 개월에서 수 년 동안 실시한 결과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면, 우리는 그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좋은 성과가 교육 프로그램이 좋아서 생긴 것인지 원래 교육 효과가 좋은 최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어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수 년 동안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교육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교육 환경에서 최상의 교육 성과를 올린 최상위권 학생들에게조차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이라면 그 프로그램이 모집단 내의 다른 임의 표본 집단에 적용했을 때 성공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을 표본 집단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연구 결과에 따라 그 신뢰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높아지기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IV장에서 논의하겠지만, 우리는 해외 체류 요인과 현저한 노력 요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학습 전략이 성인이 되어 고급 영어 구사력을 갖추는데 별 효과가 없음을 알아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교육 효과가 매우 높은 서울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했다는 사실이 우리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더욱 공고히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설문지의 구성

본 설문지는 크게 8개 영역과 그에 딸린 하위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8개 상위 영역은 아래와 같다.(설문지 전체 내용은 부록을 참조.)

(1) 설문지의 구성: 8개 상위 영역

- a. 해외 체류/거주 경험
- b. 유아기의 시청각 교재 노출 경험
- c. 영어 학습지 구독 경험
- d.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는 유치원/학원/과외 수강 경험
- e. (어린 시절) 가정 내 영어 대화자의 존재
- f. 한국인 교사가 가르치는 유치원/학원/과외 수강 경험
- g.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이나 특별 활동을 통해 영어를 배운 경험
- h. 공부하는 태도와 성과에 관한 자기 평가 질문들

첫째 항목인 ‘해외 체류/거주 경험’은 유아기,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성인기에 대해 매 시기마다 어느 나라에 어느 정도 기간을 체류 혹은 거주했는지에 관해 16개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 항목과 다른 모든 항목들에서 문항 수가 많아지는 경우는 모든 문제를 표의 형식으로 제시함으로써 가시성을 높이고 응답자들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만 쉽게 찾아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록의 설문지 참조).

두 번째 항목인 ‘유아기의 시청각 교재 노출 경험’은 단일 질문(=설문지 3번 문항)으로 초등학교 진학 이전 세서미 스트리트, 바니 시리즈, 디즈니 만화, 오디오 명작 동화 등 흔히 접할 수 있는 영어 비디오나 영어 오디오 교재를 얼마나 접했는지 질문한다.

세 번째 항목인 ‘영어 학습지 구독 경험’은 유아기,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매 시기마다 어느 학습지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구독했는지와 매 구독 시기마다 학습지 구독을 본인이 얼마나 즐겼는지, 또 학습지를 구독한 것이 본인의 영어 실력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16개 질문을 표로 제시한다.

네 번째 항목인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는 유치원/학원/과외 수강 경험’은 유아기,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매 시기마다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는 유치원/학원/과외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참여했는지, 원어민 영어 수업을 본인이 얼마나 즐겼는지, 또 원어민 영어 수업에 참여한 것이 본인의 영어 실력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13개 질문을 포함한다.

다섯 번째 항목인 ‘(어린 시절) 가정 내 영어 대화자의 존재’는 유아기와 초등학교 시절 부모나 형제, 친척 중 평소 조금씩이라도 영어로 대화를 거는 상대가 있었는지, 만일 있었다면 대화 상대의 영어 숙련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에 관한 7개 문항이다. 이 항목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과 영어로 기초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2중 언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 적어도 생성언어학적 견지에서는 그리 타당하지 않은 -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항목인 ‘한국인 교사가 가르치는 유치원/과외/학원 수강 경험’은 유아기,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대해 매 시기마다 어느 정도 기간의 교육을 받았는지, 매 시기마다 한국인 교사의 수업을 즐겼는지, 본인이 평가하기에 한국인 교사의 수업이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17개 물음을 포함한다.

일곱 번째 항목인 ‘초등학교에서 정규 수업이나 특별 활동을 통해 영어를 배운 경험’에는 초등학교 시절 공교육 현장에서 영어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원어민 교사에게 받았는지 한국인 교사에게 받았는지,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었는지 한국어로 진행되었는지, 그 수업을 즐기는 편이었는지, 초등학교 영어 수업이 본인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5개 질문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태도와 성과에 관한 자기 평가 질문들’은 첨부된 설문지의 14-18번 항목에 포함된 19개 질문들인데, 여기서는 응답자 자신이 고교 수준의 단어/숙어를 성실하게 외웠는지, Voca 2200 수준의 단어/숙어를 성실하게 외웠는지, Voca 33000 수준의 단어/숙어를 성실하게 외웠는지, 초급/중급 이상의 영문법을 공부했는지, 고급 수준의 독해 공부를 하였는지 등에 관해 다양한 질문을 하였다.

이상 8개 항목에 대한 세부 질문들을 작성할 때 논리적인 조합 가능성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노력하였다. 가령, “영어 학습지 구독 경험”이나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는 유치원/학원/과외 수강 경험”에는 고등학교 시절에 대한 물음이 없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학습지를 구독하거나 대학 입시와 무관한 원어민 과외를 받는 등의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었다.

3. 영어 성취도 평가 척도: 종속 변수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영어 학습법/교수법과 성인이 된 이후 결과적으로 갖게 된 영어 실력과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에 부합되는 평가 척도는 하급 수준에서 최상급 수준에 이르는 영어 구사력을 모두 변별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가령, 대입 수학능력평가의 영어 점수는 실질적인 영어 구사력이 중위권만 되어도 94% 이상의 득점이 가능한 관계로 적절한 평가 기준이 아니다(참조: 설문지 문항 16번).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TEPS 성적을 영어 성취도에 대한 첫 번째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TEPS가 외국어로서의 영어 사용자의 영어 구사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시험인가 하는 점은 또 다른 논의를 필요로 한다. 실제로 성기완(1999a, b, 2000), 조동완(2000), 이현우와 이소영(2003)은 각기 이념적이거나, 사변적이거나, 부족한 감이 있는 경험적 자료를 가지고 TEPS의 효용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TEPS의 효용성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쟁을 피하려 한다. 다만, TEPS 성적의 분포가 학생들의 대입 수능 성적,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시행 듣기 평가(SNUCEP LAB) 성적, 그리고 본 연구자들이 마련한 말하기/쓰기 능력 점수 등과 대단히 높은 상관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피험자들의 TEPS 총점과 영역별 점수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영어 성취도 평가 기준의 하나로 채택되었음을 밝힌다.¹

본 연구에 참가한 280명 학생들의 TEPS 성적 분포는 표 1과 같다. 여기서 우리는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의 영어 능력이 최하위 수준(TEPS 196점)에서 최상위 수준(TEPS 956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²

다음으로 본 연구자 세 사람이 수강생 개개인의 말하기/쓰기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것을 영어 성취도의 평가 척도 중 하나로 활용하였다. 이런 평가가 가능했던 것은 우리 연구자들이 280명의 피험자들을 주 2회 3시간씩 만나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졸업을 위한 학점 취득을 목표로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면서, 모든 과제에 성실하게 임하였다.

표 1³

TEPS 성적 분포

학급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초/대학영어	588.43	84.62	194	817
고급영어	803.81	71.83	623	956
전체	635.90	121.25	194	956

¹ 익명의 심사 위원이 독해에 시간을 많이 들인 사람은 독해 점수가 높고, 듣기에 많은 시간을 들인 사람은 듣기 점수가 높을 것이기 때문에 TEPS 총점을 학습자의 영어 능력 점수로 활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실제로 많은 영어 학습자들이 “나는 독해는 잘 하는데, 듣기는 못 한다”와 같은 자기 평가를 내린다. 그런데, 표 2에서 밝혀졌지만, TEPS의 영역별 점수와 총점은 모든 차원에서 매우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인다. 또, TEPS의 영역별 점수와 총점을 표준 점수로 바꾼 뒤 선형 대비(linear contrast)를 포함하는 정밀한 분산 분석을 시행해 보면, 각각의 영역별 점수가 총점 등과 선형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해외 체류 경험 없이 국내에서만 영어를 학습한 사람의 경우 독해 점수가 높으면 문법이나 듣기 점수도 높았고, TEPS의 어느 한 영역 점수가 낮으면 다른 영역 점수도 낮았지 어느 한 영역 점수는 높는데 다른 영역 점수가 낮은 경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² 서울대학교 재학생의 영어 능력이 하위 수준에서 상위 수준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표 1의 평균과 표준편차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그런데, 설문에 응답한 280명 학생 중 85.7%에 달하는 240명의 학생들이 대입 수능 영어 시험에서 만점을 받거나 3개 미만으로 틀렸다고 답했으며, 24명의 학생은 수능 영어에서 4-7문제 정도 틀렸다고 답함으로써 전체 응답자의 94.3%인 264명이 수능 영어에서 고득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능 영어 시험이 실질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증거이며, 아울러 수능 성적이나 중고교 영어 성적을 영어 성취도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³ ‘기초/대학영어’ 수강 자격이 TEPS 500-700일에도 불구하고 최대값이 817인 것은 해당 학생이 여러 차례 본 TEPS 성적 중 가장 잘 나온 것을 제출했기 때문이며, ‘고급영어’ 수강 자격이 TEPS 70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최소값이 623인 것은 ‘대학영어’를 이미 수강한 학생의 경우에 TEPS 성적이 700을 넘지 않아도 ‘고급영어’를 수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인문, 사회, 자연 과학 등 전문 영역에 대해 20분 이상 영어로 발표하기, 다양한 실생활 주제를 가지고 즉흥적으로 5분 정도 영어로 의사 표현하기, 수준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500-2000단어 정도 영어로 작문하기 등 다양한 과제가 부가되었다. 우리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의 'TOP/TWP 등급 분류표'를 참조하여 연구자들 간에 공감할 수 있는 말하기/쓰기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먼저, 말하기 능력 평가 기준은 (2)와 같다.

(2) 말하기 능력 평가 기준

a. 0점: 의사 소통이 거의 불가능함

발음: 외국인 특유의 억양과 발음 오류가 대단히 많음

유창성: 한 문장을 말하기도 어려움

어법 능력: 어법에 맞는 단문을 구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전반적 의사 소통 능력: “Good morning!” “How are you?” “What’s your job?”처럼 정형화된 문장을 말하는 데에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의도하는 바를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함; 영어로 질문을 받았을 때 알아듣는 경우가 거의 없음

b. 1점: 의사 소통이 거의 안 되는 상태

발음: 외국인 특유의 억양과 발음 오류가 대단히 많음

유창성: 머뭇거림이 대단히 심하고 한두 문장 이상 못 이어감

어법 능력: 기본 문장 구성 능력이 떨어지고, 중문이나 복문은 물론이고 단문 구성도 잘 못 하며, 어법에 맞는 문장을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전반적 의사 소통 능력: “Good morning!” “How are you?” “What’s your job?”처럼 정형화된 문장을 말하는 이외에는 의도하는 바를 전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영어로 질문을 받았을 때 한 번에 알아듣는 경우가 거의 없음

c. 2점: 의사 소통에 많은 지장 초래

발음: 외국인 특유의 억양과 발음 오류가 상당히 많음

유창성: 머뭇거림이 매우 심하고 서너 문장 이상 이어가지 못 함

어법 능력: 기본 문장 구성 능력이 떨어지고, 중문이나 복문 구성을 거의 못 하며, 단문 구성 시에도 많은 어법 오류를 포함함

전반적 의사 소통 능력: 의도하는 바를 대부분 전달하지 못 함; 영어로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음

d. 3점: 의사 소통에 다소 지장 초래

발음: 외국인 특유의 억양과 발음 오류 포함

유창성: 머뭇거림이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남

어법 능력: 외국인 특유의 어법 오류가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남

전반적 의사 소통 능력: 의도하는 바를 전달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원하는 바를 표현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잦음; 영어로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가끔 있음

e. 4점: 의사 소통에 큰 지장 없음

발음: 외국인 특유의 억양과 발음 오류 포함

유창성: 머뭇거림이 자주 나타남

어법 능력: 외국인 특유의 어법 오류가 자주 나타남

전반적 의사 소통 능력: 의도하는 바를 전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대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음

f. 5점: 의사 소통에 지장 없음

발음: 원어민 수준, 원어민에 버금가는 수준, 외국인 특유의 억양 포함

유창성: 원어민 수준, 원어민에 버금가는 수준, 외국인이기에 갖는 머뭇거림

어법 능력: 원어민 수준, 원어민에 버금가는 수준, 외국인 특유의 어법 오류

전반적 의사 소통 능력: 의도하는 바를 비교적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

다음으로 쓰기 능력 평가 기준은 (3)과 같다.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 중요한 사항으로 우리는 작문의 논리적 구성이나 응집성(coherence)처럼 특별한 훈련을 요구하는 부분은 평가하지 않고, 오로지 작문에 사용된 영어 문장의 문법적, 의미적 적절성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3) 쓰기 능력 평가 기준

a. 0점:

맞춤법: 심각한 오류가 상당히 잦아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매우 어려움

문법 능력: 기본적인 문장 구성 능력이 거의 없음

내용 의미성: 의도한 내용을 거의 전달하지 못 함

b. 1점:

맞춤법: 글의 이해에 다소 지장을 초래할 만큼 심각한 오류가 일관성 있게 나타남

문법 능력: 심각한 오류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며 기본적인 구문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보임

내용 의미성: 의도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c. 2 점:

맞춤법: 심각한 오류가 자주 나타나지만 글의 이해는 가능함

문법 능력: 심각한 오류가 자주 나타나며 기본적인 구문 활용에 어려움을 보임

내용 의미성: 의도한 내용을 전달하기 힘든 문장을 자주 사용함

d. 3점:

맞춤법: 사소한 오류와 함께 심각한 오류가 간혹 나타남

문법 능력: 사소한 오류와 함께 심각한 오류도 가끔 나타나지만 기본적인 구문 활용 능력이 있음

내용 의미성: 의도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가끔 어려움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씀

e. 4점:

맞춤법: 사소한 오류가 다소 혹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만 대체적으로 적절한 맞춤법을 사용

문법 능력: 사소한 문법 오류가 다소 혹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만 구문 활용이 대체적으로 적절함

내용 의미성: 의도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별 무리가 없음

f. 5점:

맞춤법: 완벽에 가깝거나 사소한 오류가 드물게 나타나는 상급 수준의 활용 능력

문법 능력: 사소한 문법 오류가 간혹 있기도 하나 다양한 구문을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하는 상급 수준의 문법 능력

내용 의미성: 의도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음

(3)의 쓰기 능력 평가 기준에서 언급한 ‘심각한 문법 오류’와 ‘사소한 문법 오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4) ‘심각한 문법 오류’ 예시

- a. Because the pressure to make men's dominance. (*Because* → *Because of*; 문장이 아님, 즉 주어도 술어도 없음; *to make men's dominance*는 전체 문맥 상 ‘사회를 지배하다’라는 의미로 *to dominate the society*가 되어야 함)
- b. Comparing with male conditions, women lash our against her sex role. (*Comparing* → *Compared*와 같이 적절한 분사의 활용, 수동/능동의 사용과 관련된 오류; 주절 부분은 의도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 c. Many enlightened men have no their own idea. (*no their own idea* → *no idea of their own*)
- d. We have no hope that male conditions would be fine. (문맥 상 *fine*이 아니라 *improved*가 적절함 → 부적절한 어휘 선택)
- e. 본동사가 없는 문장(We should efforts in this project; The author against the tradition that some people eat dog meat)
- f. 조동사를 두 개 이상 겹쳐 쓰는 문장(We will should pay attention to our politics; I don't can speak English) 등

(5) ‘사소한 문법 오류’ 예시

- a. Environmental and psychological affects are more important than one's ethnic backgrounds. (affects → effects)
- b. He was abstemious man, so he used to wear clothes until it became shabby. (abstemious man → an abstemious man)
- c. When her daughter said that there was a world in her eye, she became to love her right eye. (became to → came to)
- d. 그 외 단순한 주어-술어 일치 오류
- e. 가산/불가산 명사, 정관사/부정관사 활용 오류 등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그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우리 세 사람의 연구자들은 여러 학기 동안 ‘대학영어’와 ‘고급영어’를 강의하면서 학생들의 수준과 분포에 대해 상당 부분 일치하는 판단을 공유하게 되었고, 그런 동의를 바탕으로 다른 연구자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작문 과제 등을 번갈아 읽고 채점하면서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평가가 잘못 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였다. 그 결과 우리 세 사람 연구자가 부여한 말하기/쓰기 점수가 학생들의 TEPS 성적 등과 자연스럽게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는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울대학교 대학영어(SNUCEP)에서 자체 개발한 15점 만점의 영어 듣기 평가(SNUCEP LAB) 점수를 영어 성취도 기준의 하나로 활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TEPS 총점과 영역별 점수, 연구자들이 한 학기 동안 280명 학생들과 장시간 생활함으로써 확보한 말하기 점수와 쓰기 점수,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자체 영어 듣기 평가를 모두 영어 성취도 측정 기준으로 채택하였고, 이들 측정 기준 사이에 높은 상관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평가 기준에 대한 상호 확인(cross-validation)까지 끝낼 수 있었다. 표 2의 상호 확인 결과는 우리가 확보한 영어 성취도 평가 기준이 모든 영역에서 놀라울 정도로 긴밀한 상관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TEPS가 외국어로서의 영어 능력 평가에 매우 타당함을 보여주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우리 연구자들이 마련한 말하기/쓰기 평가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독립적 근거이다. 여기서 TEPS 성적을 대표적인 영어 성취도 기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대학교 대학영어 규정 상 TEPS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학번이 있는 등 여러 내부적인 사정으로 TEPS 성적이 없는 피험자가 다수 있었다. 반면 말하기와 쓰기 점수는 우리 연구자들이 직접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피험자들이 말하기와 쓰기 점수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결과 분석에서는 말하기와 쓰기를 더한 점수, 즉 S+W 점수를 영어 성취도에 대한 대표적인 종속 변수로 활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다른 점수들을 특정 분석의 종속 변수로 채택하였다.

표 2
영어 성취도 평가 기준 간 상호 확인 결과(Pearson 상관도; 괄호는 p-value)

	말하기	쓰기	S+W	LAB	LC	Gram	Voca	RC	TEPS
말하기	1 (.000)	.828 (.000)	.957 (.000)	.639 (.000)	.709 (.000)	.668 (.000)	.657 (.000)	.641 (.000)	.769 (.000)
쓰기	.828 (.000)	1 (.000)	.955 (.000)	.612 (.000)	.663 (.000)	.671 (.000)	.692 (.000)	.658 (.000)	.759 (.000)
S+W	.957 (.000)	.955 (.000)	1 (.000)	.657 (.000)	.721 (.000)	.704 (.000)	.709 (.000)	.683 (.000)	.804 (.000)
LAB	.639 (.000)	.612 (.000)	.657 (.000)	1 (.000)	.661 (.000)	.524 (.000)	.519 (.000)	.465 (.000)	.643 (.000)
LC	.709 (.000)	.663 (.000)	.721 (.000)	.661 (.000)	1 (.000)	.596 (.000)	.687 (.000)	.628 (.000)	.891 (.000)
Gram	.668 (.000)	.671 (.000)	.704 (.000)	.524 (.000)	.596 (.000)	1 (.000)	.640 (.000)	.672 (.000)	.771 (.000)
Voca	.657 (.000)	.692 (.000)	.709 (.000)	.519 (.000)	.687 (.000)	.640 (.000)	1 (.000)	.686 (.000)	.809 (.000)
RC	.641 (.000)	.658 (.000)	.683 (.000)	.465 (.000)	.628 (.000)	.672 (.000)	.686 (.000)	1 (.000)	.899 (.000)
TEPS	.769 (.000)	.759 (.000)	.804 (.000)	.643 (.000)	.891 (.000)	.771 (.000)	.809 (.000)	.899 (.000)	1 (.000)

☞ S+W=말하기+쓰기; LC/Gram/Voca/RC=TEPS 영역별 점수; TEPS=TEPS 총점

IV. 결과 및 논의

말하기와 쓰기를 합산한 S+W 점수를 종속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말하기 점수와 쓰기 점수의 분산이 동일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말하기 점수를 평균 50, 표준편차 10의 T-점수로 전환하고, 쓰기 점수를 평균 50, 표준편차 10의 T-점수로 전환한 뒤, 이 두 변환 점수를 더하여 평균 100, 표준편차 20의 S+W에 대한 T-점수(=Ts+w)를 얻어 종속 변수로 활용하였다.

(1)의 8개 상위 영역에 대한 대표적인 기술 통계값과 기초적인 수준의 추론 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체류/거주 기간에 따른 Ts+w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해외 체류 기간에 따른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F(6, 273)=13.256, p=.000), 사후 검사 결과 조금이라도 해외 체류/거주 경험이 있는 집단끼리 동질 부분집합(homogeneous subset)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205).

표 3

해외 체류/거주 경험에 따른 Ts+w 점수 평균(괄호는 표준편차; M=Month, Y=Year)

	무경험 (n=231)	3-6M (n=12)	6M-1Y (n=7)	1-1.5Y (n=11)	1.5-2.5Y (n=6)	2.5-5Y (n=6)	5Y 이상 (n=7)
Ts+w	96.03 (16.36)	116.18 (18.50)	122.78 (14.90)	111.60 (25.19)	123.78 (16.05)	112.7 (23.24)	131.05 (18.35)

둘째, 유아기의 시청각 교재 경험 정도에 따른 성인기 영어 실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F(4, 275)=.776, p=.542$; 표 4 참조).

표 4

유아기의 시청각 교재 경험 정도에 따른 Ts+w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거의/전혀 없음 (n=187)	이따금 시청 (n=66)	짧은 기간 자주 (n=7)	상당 기간 자주 (n=14)	상당 기간 거의 매일 (n=6)
Ts+w	99.31 (18.85)	100.20 (17.20)	106.23 (24.71)	100.31 (24.74)	111.35 (28.02)

셋째, 영어 학습지의 구독 여부나 구독 기간은 성인기 영어 실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F(6, 273)=.973, p=.443$; 표 5 참조).

표 5

영어 학습지 구독 여부/기간에 따른 Ts+w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구독 경험 없음 (n=162)	6M 미만 (n=24)	6M-1Y (n=20)	1-2Y (n=21)	2-3Y (n=21)	3-4Y (n=17)	5Y 이상 (n=15)
Ts+w	99.81 (19.34)	97.56 (15.57)	100.75 (21.23)	97.96 (18.35)	96.38 (16.06)	109.56 (21.89)	102.00 (20.55)

영어 학습지를 구독했던 시기를 구체적으로 유아기,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등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지만 특정 시기에 - 이를테면 아주 어린 나이에 - 영어 학습지를 구독하는 것이 성인기 영어 실력 향상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공헌을 한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유아기, $F(4, 274)=.189, p=.944$; 초등학교, $F(5, 273)=1.324, p=.254$; 중학교, $F(4, 273)=.510, p=.729$). 아울러 응답자들이 구독한 영어 학습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더니 시중에 유통되는 5-6개 사 제품으로 압축되었다. 이 중 특정 학습지를 유아기, 초등학교 시절, 혹은 중학교 시절 구독하는 것이 성인기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았더니 역시 아무런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유아기, $F(4, 4)=.848, p=.562$; 초등학교, $F(6, 99)=1.885, p=.091$; 중학교, $F(4, 40)=.105, p=.980$).

영어 학습지를 구독하는 것이 성인기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영어 학습지를 구독한 사람 중에 성인이 되어 영어를 잘 하는 경우

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보다는 영어 학습지를 구독한 사람 중 어떤 사람은 성인이 되어 고급 수준의 영어 구사력을 갖추고 있고, 다른 사람은 성인이 되어 하급의 영어 구사력을 갖추고 있는데, 영어 학습지 구독자 중 영어를 잘 하는 사람과 못 하는 사람의 분포가 전적으로 ‘우연 수준’이기 때문에 영어 학습지 구독으로 인해 영어를 잘 하게 되었다고 결론 지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영어 학습지를 구독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성인이 되어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은 영어 학습지 이외의 다른 학습 활동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며, 바로 이 제 3의 요인 때문에 영어를 잘 하게 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넷째,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는 학원/과의 수강 경험은 성인기 영어 실력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F(6, 273)=3.739, p=.001$; 표 6 참조).⁴ 그런데, 우리 연구에 참여한 280 명의 학생 중 영어 유치원을 경험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던 관계로 영어 유치원의 효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원어민 교사의 학원/과의 수업을 받은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변량 분석 결과에서 논의하겠다.

표 6

원어민 교사의 학원/과의 수업 수강 여부/기간에 따른 Ts+w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경험 없음 (n=189)	6M 미만 (n=37)	6M-1Y (n=17)	1-1.5Y (n=12)	1.5-2.5Y (n=7)	2.5-3.5Y (n=6)	3.5Y 이상 (n=12)
Ts+w	97.04 (17.57)	101.89 (18.80)	101.79 (22.91)	109.96 (21.12)	115.67 (16.17)	109.98 (8.12)	114.13 (27.40)

다섯 번째로 어린 시절 가정 내 영어 대화 상대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10 명의 응답자가 유아기 때 부모나 친척 중 가정에서 영어로 말을 거는 사람이 있었다고 답했으며, 23명의 응답자가 초등학교 시절 가정에서 영어로 말을 거는 사람이 있었다고 답했다. 재미난 것은 유아기 영어 대화자의 존재 여부는 성인기 영어 실력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F(1, 278)=1.712, p=.192$), 초등학교 시절 영어 대화자의 존재 여부는 성인기 영어 실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점이다($F(1, 278)=8.120, p=.005$). 그런데 가정 내 영어 대화 상대의 영어 숙련도는 유아기와 초등학교 시절 모두에서 성인기 영어 실력 향상에 유의미한 공헌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유아기, $F(5, 3)=.712, p=.656$; 초등학교, $F(3, 18)=.917, p=.453$).

초등학교 시절 가정 내에 영어로 대화를 나눌 상대가 있는 것이 영어 실력 향상에 중요한데 그 대화 상대의 영어 실력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은 분산 분석(ANOVA)이 지니는 약점 때문

⁴ 그러나 잠시 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에서는 원어민 교사에게서 학원/과의 수업을 받은 경험 또한 성인기 영어 실력에 대해 주목할만한 설명력을 갖지 않음을 보게 된다.

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시절 부모 중 누군가가 서툰 영어나마 지속적으로 말을 걸었던 경우라면 아마도 교육에 관심이 많은 중산층 이상 가정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런 가정일수록 아동들이 어린 시절 해외 체류/거주의 기회를 가졌을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이들이 성인이 되어 고급의 영어 구사력을 갖게 되었다 해도 그것이 가정 내 영어 대화자의 존재 때문이라기보다는 해외 체류/거주 경험과 같은 다른 이유 때문일 테고, 이에 대한 답변은 다변량 분석을 통해 내릴 수 있다. 이 문제는 잠시 후 다시 논의하겠다.

여섯 번째로 한국인 교사에게 학원/과외 수업을 받은 경험 역시 단기적인 성적 향상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인기 영어 숙련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초등학교, $F(5, 273)=.597, p=.702$; 중학교, $F(4, 274)=.148, p=.964$; 고등학교, $F(4, 273)=1.373, p=.244$).

일곱 번째로 초등학교 시절 특별 활동이나 정규 교과 과정을 통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운 경험 역시 교육 유형이나 기간에 상관 없이 성인기 영어 실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F(6, 273)=.490, p=.815$).

마지막으로 설문 참가자들이 중급 이상의 문법이나 고급 수준의 독해, 고급 수준의 어휘, CNN 뉴스 청취 등을 공부하는 데에 대해 별도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아 보기 위해, 문법, 독해, 어휘, 듣기 등과 관련된 설문지 응답을 바탕으로 새로운 독립 변수를 만들어 분석한 결과 고급 수준의 문법/독해/어휘/듣기를 공부한 것이 성인이 되어 높은 수준의 영어 구사력을 갖게 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이 밝혀졌다(문법/독해, $F(3, 275)=6.345, p=.000$; 어휘, $F(3, 275)=18.174, p=.000$; CNN/AFN 등의 고급 듣기 연습, $F(3, 275)=15.519, p=.000$; 표 7 참조).

표 7

문법/독해, 어휘, 듣기에 대한 노력 여부나 정도에 따른 Ts+w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매우 낮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문법/독해	93.63 (18.43; n=21)	95.46 (19.31; n=46)	97.08 (14.70; n=102)	105.97 (21.36; n=110)
어휘	92.81 (17.47; n=76)	97.49 (15.61; n=114)	106.47 (20.60; n=74)	124.62 (15.78; n=15)
듣기	92.85 (17.89; n=52)	92.62 (14.17; n=43)	98.93 (17.21; n=113)	111.63 (20.38; n=71)

지금까지 우리는 유년기, 소년기에 택할 수 있는 중요 영어 학습 전략 중 성인기 영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해외 체류/거주 기간, 유소년기에 원어민 교사에게 영어를 배운 경험, 초등학교 시절 가정 내 영어 대화자의 존재 여부, 고급 수준의 문법/독해/어휘/듣기 공부에 투자한 현저한 노력의 네 가지 변수를 분산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그 밖에 유아기 시청각 교재 경험, 영어 학습지 구독 경험, 한국인 교사에게 학원/과외 수업을 받은 경험,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배운 경험과 같은 요인은 적어도 영어 학습자들이 다양한

영어 학습 전략을 병행하는 요즘의 교육 상황에서는 성인기 영어 실력 향상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해외 체류/거주 기간, 유소년기에 원어민 교사에게 영어를 배운 경험, 초등학교 시절 가정 내 영어 대화자의 존재 여부, 고급 수준의 문법/독해/어휘/듣기 공부에 투자한 현저한 노력의 4요인과 Ts+w 점수를 가지고 수행한 계층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계층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결정계수(R^2)를 극대화하는 모형을 찾게 되면 주어진 여러 개의 독립 변수 중 성인기 영어 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혹은 학습 모형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자료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 시절 원어민 교사에게 영어를 배운 기간, 초등학교 시절 가정 내 영어 대화자의 존재 여부, 고급 수준의 문법/독해/어휘/듣기 공부를 위해 들인 노력 등의 요인이 모두 범주형 변수(categorical variable)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층적 다중회귀분석에 넣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⁵ 이 때문에 각 범주형 변수의 자료값 개수 k 에 대해 $k-1$ 개의 더미 변수(dummy variable)를 만들어 그 더미 변수의 집합을 다중회귀분석의 각 단계에서 한꺼번에 입력하는 고전적인 해결책을 사용하였다.

(6)은 첫 번째 회귀분석에서 각 단계별로 입력된 변수 혹은 더미 변수의 집합과 결정계수(R^2)의 변화를 보여 준다.

(6) 계층적 다중회귀분석 1

a. 1 단계: 해외 체류/거주 기간	$R^2=.157$
b. 2 단계: 초등학교 시절 원어민 수업 기간	$R^2=.176$
c. 3 단계: 중학교 시절 원어민 수업 기간	$R^2=.216$
d. 4 단계: 초등학교 시절 가정 내 영어 대화자	$R^2=.217$
e. 5 단계: 문법/독해 공부 정도	$R^2=.235$
f. 6 단계: 어휘 공부 정도	$R^2=.318$
g. 7 단계: 듣기 공부 정도	$R^2=.347$

다음으로 회귀 방정식의 표준화 계수인 베타(Beta) 값이 2단계 ‘초등학교 시절 원어민 수업 기간’(Beta1=-.251, p=.052; Beta2=-.111, p=.242; Beta3=-.111, p=.182; Beta4=-.035, p=.660; Beta5=-.085, p=.244), 3단계 ‘중학교 시절의 원어민 수업 기간’(Beta1=-.248, p=.129; Beta2=-.077, p=.536; Beta3=.023, p=.804; Beta4=.009, p=.923), 4단계 ‘초등학교 시절 가정 내 영어 대화자’(Beta=.044, p=.451)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베타=0”이라는 귀무 가설을 기각하는데 실

⁵ 원어민 교사에게 영어를 배운 기간 등의 자료는 본래 연속성 변수(continuous variable)의 형태를 취하겠으나 설문지의 구성 상 ‘3-6개월’, ‘6개월-1년’ 등의 여러 범주형 보기에 서 고르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의 원자료(raw data) 역시 범주형 변수의 형태로 입력되었다.

패한 관계로 우리는 유소년기의 원어민 수업 여부나 가정 내 영어 대화자의 존재 여부가 종속 변수인 성인기 영어 실력에 대해 특별한 설명력을 갖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처럼, 기초적인 분산 분석에서 관찰된 원어민 교사의 수업 효과나 가정 내 영어 대화자의 존재로 인한 유의미성은 해외 체류 경험 등과 같은 다른 요인과 상관 관계를 갖는 데에서 오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었음이 분명해진다. 이에 대한 독립적 증거의 확보를 위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살펴 보았더니, (6)의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 척도인 분산비(variance proportion)가 2, 3, 4 단계의 여러 변수에서 높게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제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고 (7)과 같은 모형의 회귀분석을 돌리면 성인기 영어 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7) 계층적 다중회귀분석 2

- a. 1 단계: 해외 체류/거주 기간 $R^2=.157$
- b. 2 단계: 문법/독해 공부 정도 (모든 더미 변수) $R^2=.186$
- c. 3 단계: 어휘 공부 정도 (더미 변수 1) $R^2=.221$
- d. 4 단계: 어휘 공부 정도 (더미 변수 2) $R^2=.245$
- e. 5 단계: 어휘 공부 정도 (더미 변수 3) $R^2=.264$
- f. 6 단계: 듣기 공부 정도 (모든 더미 변수) $R^2=.297$

이 회귀분석의 베타 값과 유의도를 살펴보면 1단계(Beta=.397, p=.000), 2단계(Beta1=.125, p=.031; Beta2=-.137, p=.023; Beta3=-.146, p=.018), 3단계(Beta=-.193, p=.000), 4단계(Beta=-.187, p=.004), 5단계(Beta=-.289, p=.008), 그리고 6단계(Beta1=-.200, p=.004; Beta2=-.194, p=.003; Beta3=-.179, p=.008)로서 모든 단계에서 대단히 유의미한 베타 값을 확보한 까닭에 성인기 영어 성취도에 대해 매우 효율적이고 설명력 있는 모형임을 알 수 있다. 즉, 성인이 되어 고급 수준의 영어 구사력을 갖춘 사람들은 해외에 체류한 경험이 있거나, 문법/독해/어휘/듣기 등을 공부하는 데에 현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⁶

⁶ 익명의 심사 위원은 “현저한 노력을 기울여야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는 본 논문의 주장이 결국 학습 동기와 같은 요인이 중요함을 보일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영어 학습자의 높은 학습 동기가 곧 바로 현저한 노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가 280명의 학생들을 한 학기 동안 면담한 바로는 이들 대부분이 매우 높은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극히 일부의 학생들만이 고급 수준의 영어 구사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소수의 학생들은 여지 없이 해외 체류 경험이 있거나, 문법/독해/어휘/듣기 등에 대해 현저한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었다. 이는 학습 동기가 높은 사람들 상당수가 많은 돈을 들여 개인 과외를 받고, 학원 수업을 듣고 있지만, 문법/독해/어휘/듣기 등에 대해 혼자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시간이 많지 않으면 고급 수준의 영어 구사력을 갖추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결국, 학습 동기가 높다 해서 현저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V. 결론

어떤 학습법을 택해야 영어 실력 향상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든 영어 학습자들이 궁금해 하는 바이다. 본 연구에서는 280명의 서울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현재 영어 실력을 평가하고, 영어 공부에 관한 그들의 유년기, 청소년기 개인사(個人史)를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인이 되어 우수한 영어 구사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일정 기간 해외에 거주하거나 고급 수준의 문법/독해/어휘/듣기 공부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밝혀냈다. 유감스럽게도 유아기 때 다양한 시청각 교재에 노출되었거나, 영어 학습지를 구독했거나,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는 유치원/학원/과의 수업을 받았거나, 가정 내에서 부모형제와 간단한 대화를 영어로 했거나, 한국인 교사가 가르치는 유치원/학원/과의 수업을 받았거나, 초등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받았던 경험 중 ‘단지 참여했던 사실만으로 그 효과가 확실하게 보장된 영어 학습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어린 시절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 어떤 학습 방법을 택하더라도 그 학습 방법 때문에 영어를 잘 하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으며, 그 보다는 선택한 학습 방법의 틀 안에서 고급 수준의 문법/독해/어휘/듣기 공부에 현저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지면의 한계로 유소년기 영어 학습 방법과 성인기 영어 완성도와의 관계에 관해 본 연구에서 알아낸 수많은 재미있는 사실들을 모두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미 II장에서 기존 연구의 문제점 중 하나로 언급한 자기 평가의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다. 본 연구에서 영어 학습지 구독 경험,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는 학원/과의 수강 경험, 한국인 교사가 가르치는 학원/과의 수강 경험 등의 항목은 응답자들이 그 학습 유형을 해당 시기에 얼마나 즐겼는지(=선호도), 또 응답자 본인의 판단에 그 학습 유형이 영어 실력 향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유용성)에 관한 세부 물음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얻어낸 영어 학습 유형에 따른 선호도와 유용성에 관한 자기 평가 자료를 TEPS 성적, 말하기 성적, 쓰기 성적, SNUCEP LAB 성적과 관련 지어 학습에 참여한 시기나 학습지의 종류와 같은 세부 변인까지 모두 통제하면서 상관 관계를 조사하였으나 어떤 유의미한 상관 관계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자기 평가는 자기 평가일뿐, 자기 평가를 성취도나 유용성의 평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영어 학습 방법의 효과를 연구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특정 영어 학습 방법 안에 고려해야 할 변인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가령, 외국인 교사가 가르치는 학원만 해도 교육 프로그램, 강사의 자질, 수강생의 배경 등 여러 변수가 상존하는 까닭에 더 좋은 학원과 더 나쁜 학원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점은 영어 학습지나 유아기의 시청각 교재 경험 등이 논문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모든 항목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본 논문은 많은 영어

학습법/교수법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그 어느 학습법/교수법도 평가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사변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런 문제는 연구 자체의 진행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막상 연구를 진행하고 경험적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면서 우리는 영어 교육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학습법이 미시적 변인의 다양성과 관계 없이 그리 효율적이지 않다는 일관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미시적 변인의 다양성이 교육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많은 영어 학습 교재/전략이 존재해도 효과가 정말 확실한 학습법을 찾을 수 없는 현실 상황과 일치한다. 아울러 우리의 응답자들 모두가 교육 효과가 매우 좋은 최상위권 학생들이었다는 점도 우리의 연구 결과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앞으로 응답자의 지역, 연령 등을 다양화하고, 영어 교육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대한 개별 평가 항목 등을 정밀하게 보강하여 대략 5년 간격으로 자료를 확보해 나간다면 변화하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들의 중장기적 효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가 영어 학원이나 영어 학습지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경계하고 싶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평균만 21세의 성인들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영어 학원이나 영어 학습지의 효과를 연구했을 때, 우리가 평가하는 대상은 2005년 현재의 영어 학원이나 영어 학습지가 아니라 대략 5-15년 전에 시행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5년 현재의 영어 학원이나 영어 학습지의 효과를 알아내려면 이들 교육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이 5-15년이 지나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연구 결과가 영어를 가르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학원, 학습지 회사 관계자들에게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되고, 영어 학습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하더라도 영어 실력 향상에 본인의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점에서 ‘더욱 노력하자’는 격려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교육부. (1996).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V)-영어*.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김진철. (1995). 국민학교 영어교육 효과의 지속성에 대하여. *초등영어교육*, 1, 5-17.
- 김진철, 박기화. (1999). 초등영어 교육 실시 효과에 관한 연구(I). *초등영어교육*, 5(2), 191-224.
- 부경순. (2003). 조기영어교육이 초등영어교육에 미치는 효과 (3학년을 중심으로). *초등영어교육*, 9(2), 123-148.
- 성기완. (1999a). TEPS 과연 무엇인가? (1). *인물과 사상*, 19, 29-52.
- 성기완. (1999b). TEPS 과연 무엇인가? (2). *인물과 사상*, 20, 198-206.
- 성기완. (2000). <TEPS 과연 무엇인가?> 그 후. *인물과 사상*, 26, 160-165.

- 이길영. (2002). 초등영어교육을 경험한 학습자의 중학교 영어학습태도. *영어교육*, 57(2), 343-363.
- 이동한, 이세중. (2001). Phonics를 통한 모음지도가 초등학생 영어 읽기 능력향상에 미치는 효과. *초등영어교육*, 7(2), 243-271.
- 이완기, 최연희, 부경순, 이정원. (2001). 중학교 1학년 영어교육에 나타난 초등영어교육의 효과. *영어교육*, 56(4), 211-241.
- 이현우, 이소영. (2003). TOEFL, TOEIC, TEPS 시험 점수와 대학 수학 능력과의 연관성 연구. *영어어문교육*, 9(1), 153-171.
- 조동완. (2000). TEPS(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의 타당도에 대한 연구. *응용언어학*, 16(1), 197-213.
- 최연희, 이정원, 이완기, 부경순. (2002). 중학교 영어교육의 실태 분석을 통한 초등영어교육의 효과 검증: 학생 설문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초등영어교육*, 9(1), 131-165.
- 홍중성. (2001). 어학원 생존경쟁 치열. *매일경제* 2001년 2월 7일.
- Cheong, Sung-Hui; & Lee, Dong-Hoon. (2003). The influence of early childhood on EFL learners' performance and attitude. *English Language Teaching*, 15(1), 31-54.

부록

설문지

1. 귀하는 영어권 국가에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체류한 경험이 있습니까?
(어학연수나 해외여행, 카투사 군복무 등도 포함) **답변:** 예, 아니오

2. 위 물음 1에 “예”로 답하신 경우만, 아래의 도표 속 물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해외 체류 시기	해외 체류 기간	체류 국가 (단답형 주관식)
유아기 (=초등학교 진학 이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6개월, <input type="checkbox"/> 6개월~1년, <input type="checkbox"/> 1~2년, <input type="checkbox"/> 2~3년,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예: 미국, 영국, 홍콩)
초등학교 시절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6개월, <input type="checkbox"/> 6개월~1년, <input type="checkbox"/> 1~2년, <input type="checkbox"/> 2~3년,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예: 미국, 영국, 홍콩)
중학교 시절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6개월, <input type="checkbox"/> 6개월~1년, <input type="checkbox"/> 1~2년, <input type="checkbox"/> 2~3년	(예: 미국, 영국, 홍콩)
고등학교 시절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6개월, <input type="checkbox"/> 6개월~1년, <input type="checkbox"/> 1~2년, <input type="checkbox"/> 2~3년	(예: 미국, 영국, 홍콩)
성인기 (=고등학교 졸업 이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6개월, <input type="checkbox"/> 6개월~1년, <input type="checkbox"/> 1~2년, <input type="checkbox"/> 2~3년,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예: 미국, 영국, 홍콩)

3. 귀하는 초등학교 진학 이전(= 유아기 때) 영어 비디오나 영어 오디오 교재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었습니까? (예: 세서미 스트리트, 바니, 디즈니 만화, 오디오 명작동화)

답변: 상당한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시청
 상당한 기간 동안 비교적 자주 시청

- 짧은 기간 동안 비교적 자주 시청
- 이따금씩 시청했던 것 같음
- 시청했던 기억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음

4. 귀하는 초등학교 진학 전부터 중학생 시절까지 영어 학습지를 3개월 이상 구독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윤선생 영어, 눈높이 영어) **답변:** 예 , 아니오

5. 위 물음 4에 “예”로 답하신 경우만, 아래의 도표 속 물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학습지 구독 시기	학습지 구독 기간	학습지 종류 (단답형 주관식)	귀하는 학습지 구독을 즐겼습니까?	학습지가 귀하의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유아기 (= 초등학교 진학 이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6개월 <input type="checkbox"/> 6개월~1년 <input type="checkbox"/> 1~2년 <input type="checkbox"/> 2~3년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예: 윤선생 영어, 튼튼 영어)	<input type="checkbox"/> 매우 즐겼다 <input type="checkbox"/> 즐겼던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그저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지겨운 편이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지겨웠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도움이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도움이 된 편이었다 <input type="checkbox"/> 그저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별 도움이 없었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도움이 없었다
초등학교 시절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6개월 <input type="checkbox"/> 6개월~1년 <input type="checkbox"/> 1~2년 <input type="checkbox"/> 2~3년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예: 윤선생 영어, 튼튼 영어)	<input type="checkbox"/> 매우 즐겼다 <input type="checkbox"/> 즐긴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그저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지겨운 편이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지겨웠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도움이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도움이 된 편이었다 <input type="checkbox"/> 그저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별 도움이 없었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도움이 없었다
중학교 시절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6개월 <input type="checkbox"/> 6개월~1년 <input type="checkbox"/> 1~2년 <input type="checkbox"/> 2~3년	(예: 윤선생 영어, 튼튼 영어)	<input type="checkbox"/> 매우 즐겼다 <input type="checkbox"/> 즐긴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그저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지겨운 편이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지겨웠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도움이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도움이 된 편이었다 <input type="checkbox"/> 그저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별 도움이 없었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도움이 없었다

6. 귀하는 초등학교 진학 전부터 중학생 시절까지 원어민 선생님이 영어로만 가르치는 유치원/학원/과의 수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답변:** 예 , 아니오

7. 위 물음 6에 “예”로 답하신 경우만, 아래의 도표 속 물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사교육 참여 시기	사교육 참여 기간	귀하는 영어로만 배우는 수업을 즐겼습니까?	원어민 선생님의 영어 수업이 귀하의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유아기 (= 초등학교 진학 이전)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6개월 <input type="checkbox"/> 6개월~1년 <input type="checkbox"/> 1~2년 <input type="checkbox"/> 2~3년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매우 즐겼다 <input type="checkbox"/> 즐겼던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그저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지겨운 편이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지겨웠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도움이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도움이 된 편이었다 <input type="checkbox"/> 그저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별 도움이 없었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도움이 없었다
초등학교 시절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6개월 <input type="checkbox"/> 6개월~1년 <input type="checkbox"/> 1~2년 <input type="checkbox"/> 2~3년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매우 즐겼다 <input type="checkbox"/> 즐겼던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그저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지겨운 편이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지겨웠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도움이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도움이 된 편이었다 <input type="checkbox"/> 그저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별 도움이 없었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도움이 없었다
중학교 시절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6개월 <input type="checkbox"/> 6개월~1년 <input type="checkbox"/> 1~2년 <input type="checkbox"/> 2~3년	<input type="checkbox"/> 매우 즐겼다 <input type="checkbox"/> 즐겼던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그저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지겨운 편이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지겨웠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도움이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도움이 된 편이었다 <input type="checkbox"/> 그저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별 도움이 없었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도움이 없었다

8. 귀하가 초등학교 진학 전부터 초등학생 시절까지 귀하에게 평소 조금씩이라도 영어로 대화를 거는 상대가 있었습니까? **답변:** 예 , 아니오

9. 위 물음 8에 “예”로 답하신 경우만, 아래의 도표 속 물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영어 대화자 유무	대화 상대 (단답형 주관식)	귀하와 영어로 대화를 나누었던 상대의 영어 숙련도를 아래 네 가지 보기에서 골라 주십시오.
유아기 (= 초등학교 진학 이전)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예: 엄마, 아빠)	<input type="checkbox"/> 네이티브 혹은 네이티브에 준하는 능력 <input type="checkbox"/> 네이티브는 아니지만 상당히 유창함 <input type="checkbox"/> 초보적인 의사 소통 능력 <input type="checkbox"/> 교재 등을 통해 적절한 표현을 익혀 가며 말하는 수준
초등학교 시절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예: 엄마, 아빠)	<input type="checkbox"/> 네이티브 혹은 네이티브에 준하는 능력 <input type="checkbox"/> 네이티브는 아니지만 상당히 유창함 <input type="checkbox"/> 초보적인 의사 소통 능력 <input type="checkbox"/> 교재 등을 통해 적절한 표현을 익혀 가며 말하는 수준

10. 귀하는 초등학교 진학 전부터 고등학생 시절까지 한국어로 영문법/독해 등을 가르치는 유치원/학원/과외 수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답변:** 예 , 아니오

11. 위 물음 10에 “예”로 답하신 경우만, 아래의 도표 속 물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사교육 참여 시기	사교육 참여 기간	귀하는 한국인 선생님의 수업을 즐겼습니까?	한국인 선생님의 영어 수업이 귀하의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유아기 (= 초등학교 진학 이전)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6개월 <input type="checkbox"/> 6개월~1년 <input type="checkbox"/> 1~2년 <input type="checkbox"/> 2~3년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매우 즐겼다 <input type="checkbox"/> 즐겼던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그저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지겨운 편이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지겨웠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도움이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도움이 된 편이었다 <input type="checkbox"/> 그저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별 도움이 없었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도움이 없었다
초등학교 시절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6개월 <input type="checkbox"/> 6개월~1년 <input type="checkbox"/> 1~2년 <input type="checkbox"/> 2~3년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매우 즐겼다 <input type="checkbox"/> 즐겼던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그저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지겨운 편이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지겨웠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도움이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도움이 된 편이었다 <input type="checkbox"/> 그저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별 도움이 없었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도움이 없었다
중학교 시절 (<input type="checkbox"/> 예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6개월 <input type="checkbox"/> 6개월~1년 <input type="checkbox"/> 1~2년 <input type="checkbox"/> 2~3년	<input type="checkbox"/> 매우 즐겼다 <input type="checkbox"/> 즐겼던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그저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지겨운 편이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지겨웠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도움이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도움이 된 편이었다 <input type="checkbox"/> 그저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별 도움이 없었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도움이 없었다

고등학교 시절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6개월	<input type="checkbox"/> 매우 즐겼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도움이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6개월~1년	<input type="checkbox"/> 즐겼던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도움이 된 편이었다
	<input type="checkbox"/> 1~2년	<input type="checkbox"/> 그저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그저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2~3년	<input type="checkbox"/> 지겨운 편이었다	<input type="checkbox"/> 별 도움이 없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지겨웠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도움이 없었다

12. 귀하는 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정규 수업이나 특별 활동을 통해 영어 수업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답변:** 예 , 아니오

13. 위 물음 12에 “예”로 답하신 경우만, 아래의 도표 속 물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배운 시기 (여러 개의 답변 가능)	귀하가 가장 많이 받았던 영어 수업의 유형을 아래 보기에서 한 개만 골라 주십시오.	귀하는 초등학교에서 받는 영어 수업을 즐겼습니까?	초등학교 영어 수업이 귀하의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input type="checkbox"/> 1 학년 <input type="checkbox"/> 2 학년 <input type="checkbox"/> 3 학년 <input type="checkbox"/> 4 학년 <input type="checkbox"/> 5 학년 <input type="checkbox"/> 6 학년	<input type="checkbox"/> 원어민 선생님이 영어로 하는 수업 <input type="checkbox"/> 학교의 <u>한국인</u> 선생님이 영어로 하는 수업 <input type="checkbox"/> 학교의 <u>한국인</u> 선생님이 한국어로 하는 수업 <input type="checkbox"/> 외부 초빙 <u>한국인</u> 선생님이 영어로 하는 수업 <input type="checkbox"/> 외부 초빙 <u>한국인</u> 선생님이 한국어로 하는 수업	<input type="checkbox"/> 매우 즐겼다 <input type="checkbox"/> 즐겼던 편이다 <input type="checkbox"/> 그저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지겨운 편이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지겨웠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도움이 되었다 <input type="checkbox"/> 도움이 된 편이었다 <input type="checkbox"/> 그저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별 도움이 없었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도움이 없었다

14. 귀하의 중학교 시절 학교에서의 영어 성적은 어느 정도 집단에 속해 있었습니까?
답변: 상위권 , 중위권 , 하위권

15. 귀하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의 영어 성적은 어느 정도 집단에 속해 있었습니까?
답변: 상위권 , 중위권 , 하위권

16. 귀하는 대입 수능 영어 시험에서 50 문항 기준으로 어느 정도 득점을 하셨습니까?
답변: 만점 혹은 1~3 개 틀리는 수준 (94 % 이상 득점)
 4~7 개 틀리는 수준 (86 % 이상 득점)
 8~10 개 틀리는 수준 (80 % 이상 득점)
 11~15 개 틀리는 수준 (70 % 이상 득점)
 16~20 개 틀리는 수준 (60 % 이상 득점)
 21~30 개 틀리는 수준 (40 % 이상 득점)
 31 개 이상 틀리는 수준 (40 % 미만 득점)

17. 귀하는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 단어/속어를 뜻만이라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중학교 1~2 학년 수준
 중학교 3 학년 수준
 고교 수준의 어휘 절반 정도

- 고교 수준의 어휘 대부분
 VOCA 22000 등의 대학 교양 수준
 VOCA 33000 등의 대학원 고급 수준

18. 아래의 **도표 속 물음 전부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 주십시오.

관련 영역	물 음	답변
학업 성취	나는 <u>중고등학교 시절</u> 학교 (내신) 성적 관리에 필요한 정도의 영어 공부를 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학업 성취	나는 <u>중고등학교 시절</u> (내신 관리 뿐 아니라) 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정도의 영어 공부도 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문법/독해	나는 (학원/과외/독학 등을 통해) 일정 기간 기본적인 영문법을 숙지하고, 기초 독해력을 다지는 공부를 한 경험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문법/독해	나는 (학원/과외/독학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중급 이상의 영문법 책과 중급 이상의 독해 책을 공부한 경험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문법/독해	나는 (학원/과외/독학 등을 통해) 영어 소설, 영자 신문 등의 영어 원전을 읽은 일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시험 대비	나는 <u>대입 수능을</u> 대비할 때, 독해 문제의 정답을 찾는 훈련을 많이 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시험 대비	나는 <u>대입 수능을</u> 대비할 때, 독해 문제의 지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모르는 단어/숙어를 최대한 암기하도록 노력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시험 대비	나는 편입 시험, 취직 시험, TOEFL, TOEIC, TEPS 등의 시험 준비를 하고 있거나 한 일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어휘, 생활영어	나는 (학원/과외/독학 등을 통해) 고교 수준의 단어/숙어 대부분을 성실하게 외웠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어휘, 생활영어	나는 (학원/과외/독학 등을 통해) VOCA 22000 수준의 단어/숙어를 공부하고 있거나 공부한 일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어휘, 생활영어	나는 (학원/과외/독학 등을 통해) VOCA 33000 수준의 단어/숙어를 공부하고 있거나 공부한 일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어휘, 생활영어	나는 (학원/과외/독학 등을 통해) 성인용 회화 교재나 생활 영어 표현 중심의 교재를 공부한 경험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듣기	나는 <u>중고등학교 시절</u> (학원/과외/독학 등을 통해) 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수준의 듣기 평가 문제 풀이를 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듣기	나는 (학원/과외/독학 등을 통해) TOEFL, TOEIC, TEPS 수준의 듣기 평가 문제 풀이를 한 일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듣기	나는 (학원/과외/독학 등을 통해) 다양한 교재를 사용한 심도 있는 듣기 공부를 한 일이 있다 (예: AFN, CNN, 팜송 청취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교육단계(applicable levels): 초등 교육(elementary), 중등 교육(secondary)

주 제 어(key words): 조기 영어 교육, 사교육, 공교육, 영어 성취도, 영어 유치원, 영어 학습지, TEPS

전중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과학과
449-791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Tel: (031) 330-4228
Fax: (031) 330-4074
Email: jongsupjun@korea.com

황윤희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대학영어 프로그램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Tel: (02) 880-5863
Fax: (02) 880-5880
Email: yhjr45@snu.ac.kr

이시연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대학영어 프로그램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Tel: (02) 880-5868
Fax: (02) 880-5880
Email: e_siyeon@hotmail.com

Received in August, 2005
Reviewed in September, 2005
Revised version received in November, 2005